

# 창원지역 기업 ESG 경영 인식 및 참여요인 조사

2022. 5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ESG 경영을 바라보는 창원지역 기업의 인식을 알아보고, 지역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 등 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제공

##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창원지역 제조업체(236부 회수 설문지 중 191부)
- Fax, E-mail(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2년 2월 21일 ~ 4월 28일
- 분석방법 : 설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4개의 요인변수와 기업 특성별 범주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ESG 경영의 도입 또는 준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sup>1)</sup>
- 통계패키지 : SPSS 18

## 3. 설문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업체 수 (개)	비중 (%)	구 분	업체 수 (개)	비중 (%)
ESG 도입기업	87	45.5	내수기업	76	39.8
ESG 비도입기업	104	54.5	수출기업	115	60.2
계	191	100.0	계	191	100.0

## 4. 조사사항

-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여부
-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비도입 이유
-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요인

1) 종속변수가 범주 혹은 명목척도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 독립변수는 양적인 변수와 범주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속변수의 확률값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log \frac{P}{1-P} = \beta + \sum_{i=1}^k \beta_i x_i$$

$P$  =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할 확률  
 $\beta_0, \dots, \beta_k$  = 추정 파라미터  
 $x_1, \dots, x_k$  = 각 설명변수

## II. ESG 경영의 개념 및 동향

### 1. ESG 경영의 의미와 도입이유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핵심요소로 삼아 기업의 지속가능성<sup>2)</sup>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어 자체의 의미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단어의 조합이지만, 숨은 키워드는 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가치, 비재무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ESG 경영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채택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다. 이 보고서에는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SG는 2006년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주도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가 발표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sup>3)</sup>에 의해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가지 하위요소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이슈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 한발 더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인권 보장과 데이터 보호, 다양성 고려, 공급망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

2)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크게 6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①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② 투자 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투자자가 된다. ③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④ 금융 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⑤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⑥ PRI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중시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이슈다.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고객, 신용평가사,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경영트렌드로 부각하는 ESG 경영지표에 부합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주주, 직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환경에 대한 책임활동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ESG 평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ESG 요인들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기업의 ESG 이행 계획의 실현 여부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다.<sup>4)</sup>

기업목적의 측면에서 본 ESG 경영은 미래사회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한다는 필수적 요소이고, 자본조달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 투자자들의 핵심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 관리 요소이며,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sup>5)</sup>

ESG경영은 과거 경영성과와 이익을 위한 기업성장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전략이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제품생산 과정과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ESG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보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유럽이

---

4) 김효정·이준석, 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 괴리 가능성 연구-ESG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연구 제35권 제4호, p.200, 2021

5)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 p.6, 2021

최근 추진 중인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분류체계규정(Taxonomy),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등의 입법화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쟁국가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무역장벽인 SPS<sup>6)</sup>나 TBT<sup>7)</sup>와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 전반적으로 ESG 경영의 도입 필요성은 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서, 정부, 투자자, 금융회사, 소비자 등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2. ESG 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 1) 해외 ESG 경영

유럽은 ESG 경영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탄소세와 같은 환경적 측면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NFRD, SFDR, Taxonomy, Due diligence<sup>8)</sup>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ESG 경영 정착을 위해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sup>9)</sup>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선언한 바 있고, 청정에너지투자 등 환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더불어 ‘공중 보건과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이라는 행정

6)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외교통상용어사전)

7)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의미로 무역 상대국들이 서로 다른 표준(Standard),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두산백과)

8) EU는 ESG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NFRD(비재무정보보고 지침),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NFRD(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Taxonomy(분류체계 규정), 기업 공급망에 걸쳐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Due diligence(공급망 실사제도) 등이 있다.

9)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령의 공표로 ESG 활동 중심의 국정운영을 천명하면서, ESG 경영이 세계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 중 ESG에 대한 원칙은 기업의 ESG 정보공개 강화,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 기후 위기를 고려한 환경규제 도입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이사 결정 과정에서 ESG 가격화, 연기금 투자에서의 ESG 관련 규정 개정 등이다.

중국 또한 2021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녹색’, ‘탄소’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제14차 5개년 계획인 ‘14.5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경제를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의 종합 방침 실행으로 에너지 총사용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관리 시스템 개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사용권 거래시장 조성을 진행하는 한편, 탄소배출 관련 프로젝트 진행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지도의견 제시,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정산·거래 시스템을 구축,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대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민생복지의 일환으로 고용의 질적 향상 추진과 인적자본 강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정비 등과 같은 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안전한 생산 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등 사회(S), 지배구조(G)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sup>10)</sup>

## 2) 국내 ESG 경영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 3월 31일 열린 제48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2021년을 ESG 경영 확산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각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7가지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7가지에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강화, 공공부문의 ESG 경영선도, ESG 채권·펀드 활성화,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이 있다. 또한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4G<sup>11)</sup>에 참여해 국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10) 임형철·정무섭,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아태비즈니스연구, Vol.12 No.4, p.182, 2021

국내 ESG 투자 또한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서는 작은 규모이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sup>12)</sup> 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ESG액티브펀드는 2017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인덱스펀드의 경우 6배 증가했다. 또 채권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은 상장종목 약 549개, 상장잔액 82.6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국내 연기금과 금융기관에서도 ESG 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에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계열사의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집중해 대응 중에 있지만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 요구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ESG 평가 확대로 점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간 컨설팅, 신용평가, 언론사, 경제단체, 정부 및 지자체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에 참여하면서 ESG 서비스의 생태계가 조성 중에 있어 국내 ESG 경영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국내 실정을 감안한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평가지표들이 국내 사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마다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와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이 ESG 경영 추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시기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기업이 우선 고려해야 할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해 핵심적인 61개 사항을 마련했다.

---

1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및 기업·시민사회 등의 민간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융합형 국제 협의체이다. 국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두산백과)

12)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 p.7, 2021

<표 1>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

영역	범주	진단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3)	<i>ESG 정보공시 방식 · 주기 · 범위</i>
	정보공시 내용(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1)	<i>ESG 정보공시 검증</i>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2)	환경경영 목표 수립 · <i>추진체계</i>
	원부자재(2)	<i>원부자재 사용량</i> ,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4)	<i>온실가스 배출량(Scope1, 2, 3) · 검증</i>
	에너지(2)	<i>에너지 사용량</i>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2)	<i>용수 사용량</i> ,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2)	<i>폐기물 배출량</i> ·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2)	<i>대기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i>
	환경 법/규제 위반(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22개 문항)	목표(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6)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i>정규직 비율</i> ,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i>결사의 자유 보장</i>
	다양성 및 양성평등(3)	<i>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장애인 고용율</i>
	산업안전(2)	<i>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i>
	인권(2)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3)	협력사 ESG 경영 · 지원 · 협약사항
	지역사회(2)	<i>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i>
	정보보호(2)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1)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5)	<i>이사회 ESG 안건 상정</i> ,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4)	<i>전체 이사 출석률</i> ,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i>이사회 안건 처리</i>
	주주권리(4)	<i>주주총회 소집 공고</i>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1)	<i>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i>
	감사기구(2)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자료 :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

※ 진하게 표시된 항목은 중견·중소기업 진단항목

또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 서도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해 국내 기업의 ESG 수준 제고 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은 각 범주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 적,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 3. 창원지역 상장사 ESG 경영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21년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ESG 등급<sup>13)</sup>에 서 창원소재 24개 KOSPI 상장사 중 ESG 등급을 ‘A’를 받은 회사는 7개사(비 중 29.0%), ‘B+’ 1개사(4.2%), ‘B’ 9개사(37.5%), ‘C’ 7개사(29.2%)다.

전국 76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등급별 비중과 비교해보면, ‘A’등급 이상의 비중은 전국 수준보다 높지만, ‘B’등급 이하의 비중 또한 전국 수준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등급별 비중에서는 중간 수준의 ‘B+’등급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창원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간 ESG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항목으로 환경(E) 부문에는 1개사가 ‘A+’(4.2%) 받았고, ‘A’ 4개사

13) ESG 등급 명칭 및 의미

등 급	의 미
S (탁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A+ (매우우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우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B+ (양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 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B (보통)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 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C (취약)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D (매우취약)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 치 훼손이 우려됨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7.0%), 'B+' 2개사(8.3%), 'B' 6개사(25.0%), 'C' 7개사(29.2%), 'D' 4개사(17.0%)다,

사회(S) 부문은 'A+' 4개사(16.7%), 'A' 3개사(13.0%), 'B' 7개사(29.2%), 'C' 9개사(37.5%), 'D' 1개사(4.2%)였다.

지배구조(G) 부문은 'A' 5개사(21.0%), 'B+' 11개사(45.8%), 'B' 8개사(33.3%)다.

<표 2> ESG 등급별 창원지역 KOSPI 상장사

구분	등급	A+	A	B+	B	C	D	전체
ESG	업체수	0	7	1	9	7	0	24
	비중	0	29	4.2	37.5	29.2	0	100.0
	(전국)	(1.8)	(22)	(17.7)	(27.6)	(28.9)	(2.0)	
E	업체수	1	4	2	6	7	4	24
	비중	4.2	17.0	8.3	25	29.2	17	100.0
	(전국)	(1.4)	(15.0)	(14.9)	(20.9)	(21.4)	(26.0)	
S	업체수	4	3	0	7	9	1	24
	비중	16.7	13.0	0	29.2	37.5	4.2	100.0
	(전국)	(17.8)	(15.0)	(13.6)	(19.2)	(30.5)	(4.0)	
G	업체수	0	5	11	8	0	0	24
	비중	0	21.0	45.8	33.3	0.0	0.0	100.0
	(전국)	(1.1)	(21.0)	(43.6)	(27.3)	(5.4)	(1.0)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2021년 기준

### III.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인식 및 참여요인

#### 1. ESG 경영에 대한 인식

##### 1)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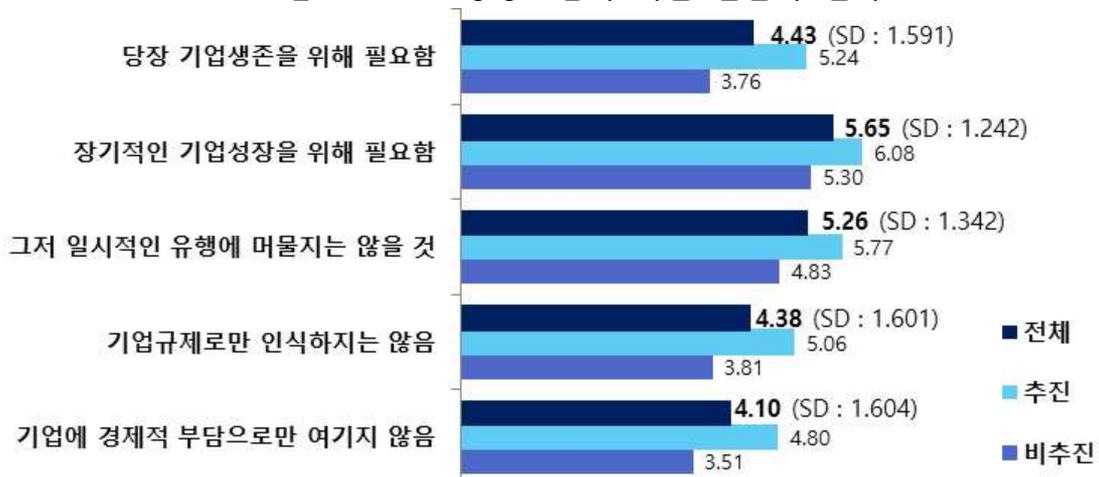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응답업체(창원지역 기업)의 전반적 인식(7점 척도)을 평균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장기적인 기업성장에 필요하다’가 5.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시적 유행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는 항목도 5.2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당장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하다’(4.43), ‘기업규제로만 인식하지는 않는다’(4.38), ‘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는다’(4.10) 순이었다.

5개의 질문항목 모두 기준점(4점) 이상을 나타냈으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자 규제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항목 부문은 기준점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응답에 대한 표준편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경영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단기적 또는 현실적으로는 규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불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기준점(4) 이하를 보였으나, ‘장기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5.30)하고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지는 않을 것’(4.83)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ESG 경영도입에 대한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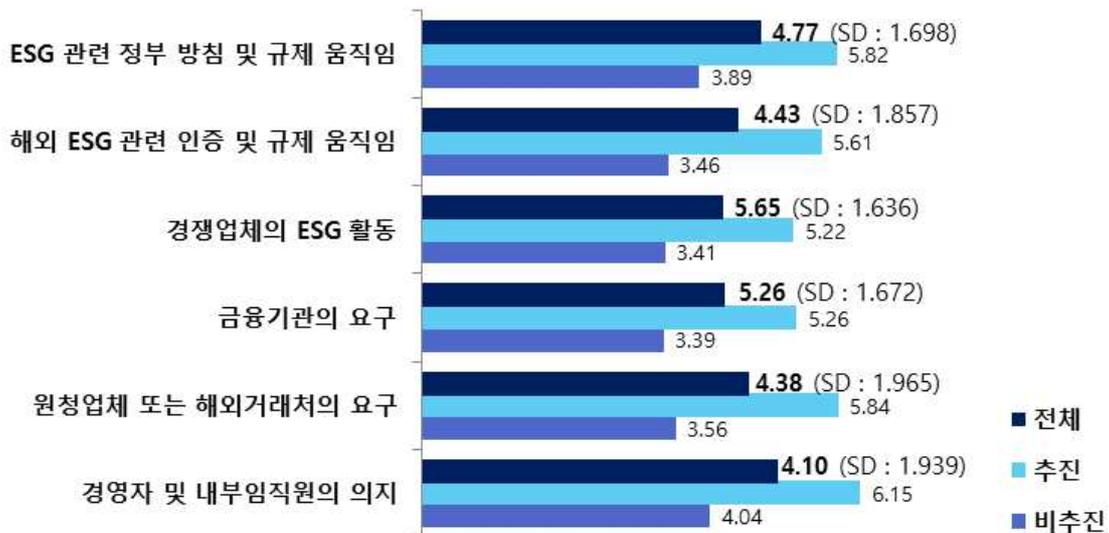


## 2)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내외 주체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영자 및 내부임직원의 의지’(5.00)와 ‘정부의 방침 및 규제 움직임’(4.7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4.60), ‘해외 ESG 관련 인증 및 규제 움직임’(4.44), ‘금융기관의 요구’(4.25), ‘경쟁업체의 ESG 활동’(4.23)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4)을 상회한 가운데 표준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원청기업 등 이해관계자, 금융기관, 정부 및 지자체 등 ESG 경영의 필요성 또는 관련 정보를 최초로 습득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 정도가 상이한데서 오는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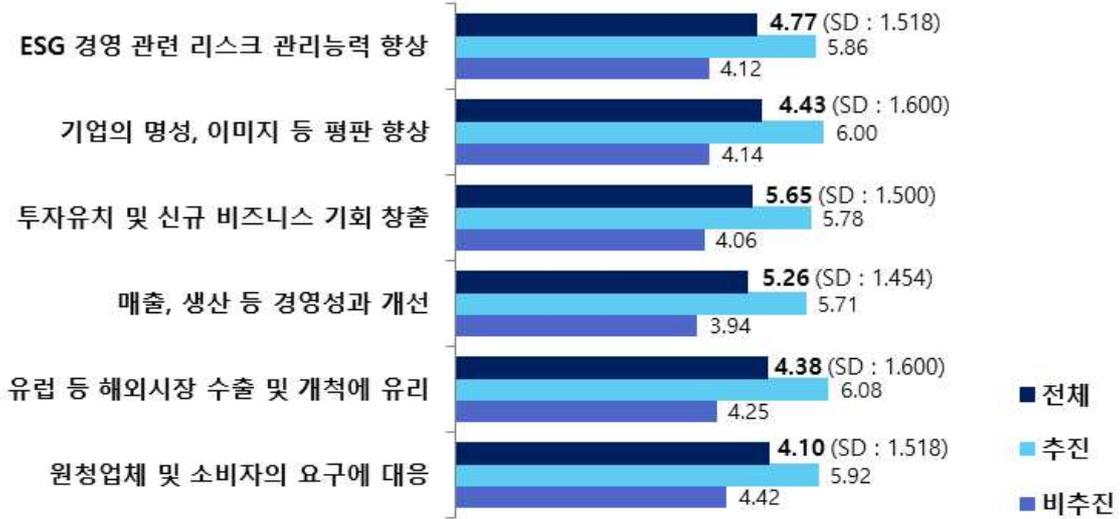
<그림 2>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 3) ESG 경영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각 효과항목들에 대해 그 정도를 평균한 결과, ‘원청업체 및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5.10), ‘유럽 등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유리’(5.08), ‘기업의 명성, 이미지 등 평판 향상’(4.99), ‘ESG 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4.91), ‘투자유치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4.84), ‘매출, 생산 등 경영성과 개선’(4.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ESG 경영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 4) ESG 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 개별 항목의 중요도를 평균한 결과, ‘ESG 도입 기업에 대한 세재·재정 지원’(6.03), ‘캠페인 등 임직원 인식전환 및 개선 지원’(5.92), ‘ESG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

<그림 4> ESG 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원'(5.88), 'ESG 평가지표 통합 및 구체적 방법 제시'(5.77), '정부 및 지자체의 제반 인프라 지원'(5.71), '기업 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5.69), '원청·협력업체와의 ESG 관리 공조'(5.57), '컨설팅 및 정보 제공'(5.52), 'ESG 도입 기업 인증 및 공공구매 확대'(5.46)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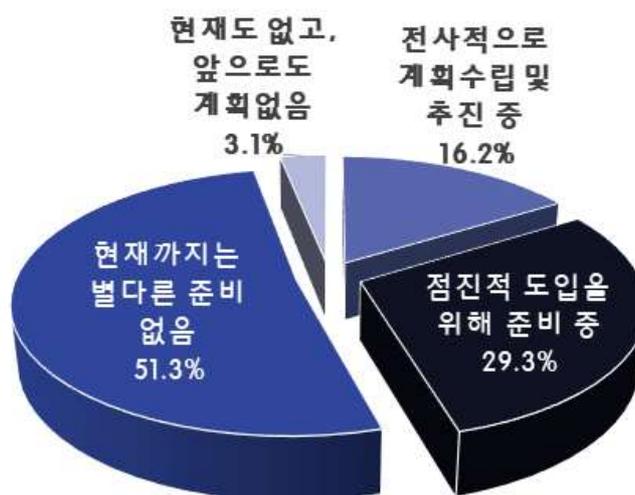
9개 항목 모두 대체로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ESG 관련 지원은 ESG 경영에 대한 응답업체의 인식이나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 ESG 경영 추진 여부 및 활동

### 1) ESG 경영 추진 여부

창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16.2%가 '전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9.3%는 '점진적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답해, 응답업체의 45.5%가 ESG를 경영활동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절반 이상인 51.3%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3.1%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림 5> ESG 경영 도입 추진 여부(n=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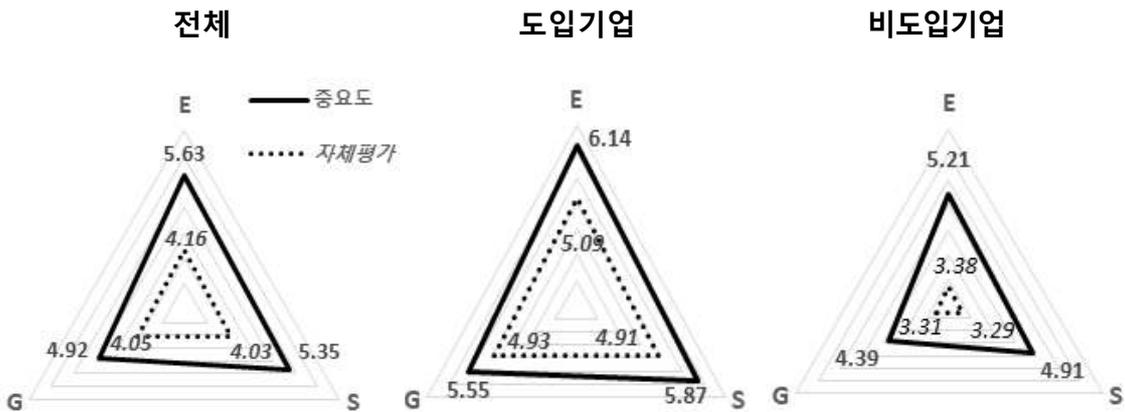


## 2)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인식 및 자체평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ESG 경영 핵심요소별로 창원지역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성 정도(7점 척도)와 이를 어느 정도를 경영활동에 접목하고 있는지를 자체평가(7점 척도)한 결과, 3개 핵심요소 모두 자체 평가한 평균값이 중요도를 평균값 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E(환경) 부문이 중요도와 자체평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환경부문은 ESG 경영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기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으며, 무엇보다 법적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중요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평가에 있어서도 다른 요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법과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ESG 경영의 리스크 관리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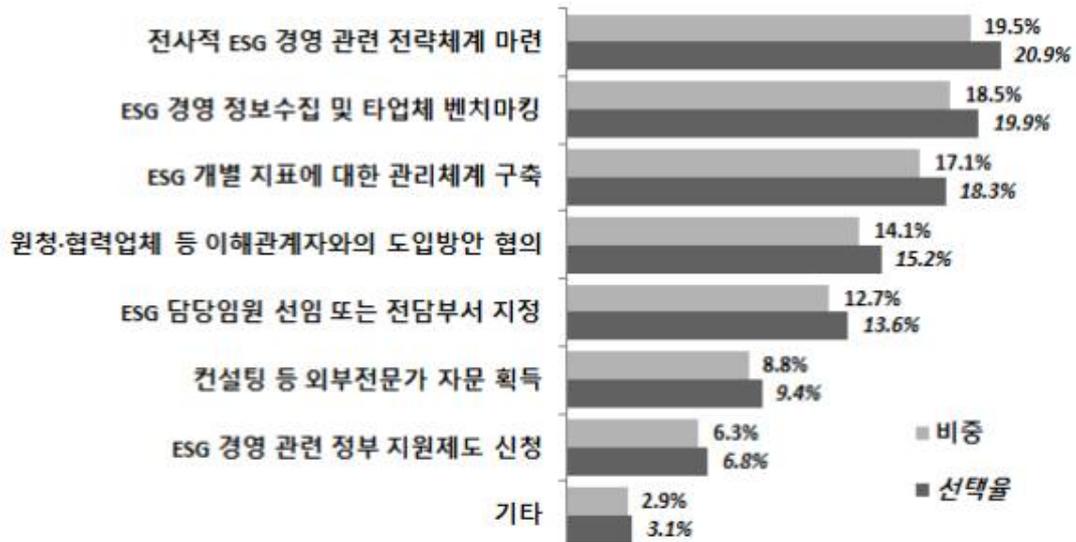
<그림 6> 창원지역 기업 ESG 경영 중요도 및 자체평가 비교



※ E=환경, G=지배구조, S=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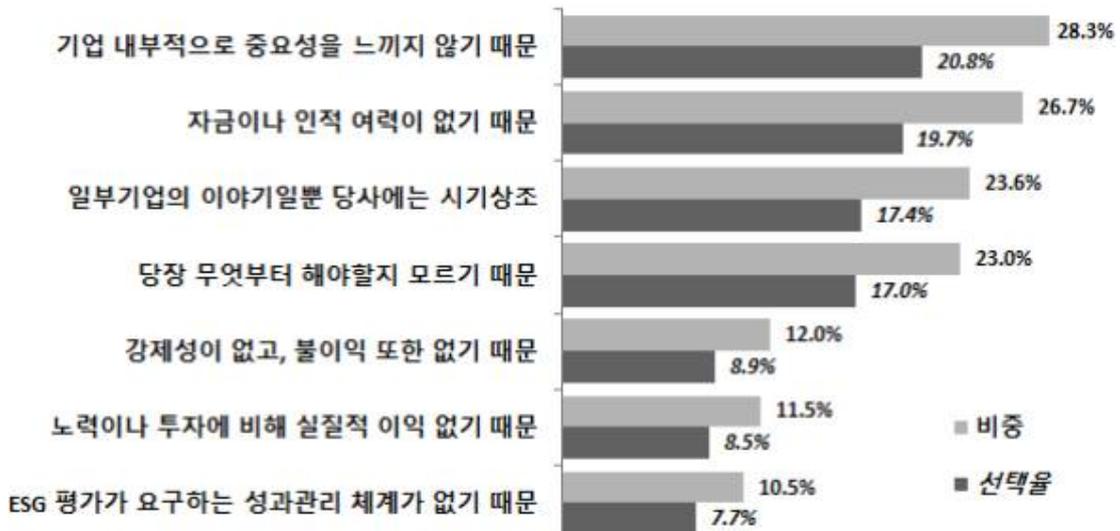
다만 ESG 경영을 도입했거나 자사의 경영방침에 접목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이하 도입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하 비도입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도입기업의 경우 비도입기업과 비교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 모두 중요도와 자체평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자체평가 수준 간의 간격 또한 상대적으로 작게 조사되었다.

<그림 7>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노력 (n=87)



ESG 경영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업체의 19.5%가 ‘전사적 ESG 경영 관련 전략체계 마련’을 꼽았고, 다음으로 ‘ESG 경영 정보수집 및 타업체 벤치마킹’(18.5%), ‘ESG 개별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17.1%), ‘원청·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도입방안 협의’(14.1%), ‘ESG 담당임원 선임 또는 전담부서 지정’(12.7%),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 자문 획득’(8.8%), ‘ESG 경영 관련 정부 지원제도 신청’(6.3%) 순으로 답해 대체로 기업 자체활동을 통해 추진 중이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n=104)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 ‘자금이나 인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 각각 28.3%,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부기업의 이야기일 뿐 당사에는 시기상조’ 23.6%, ‘당장 무엇부터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 23.0%, ‘강제성이 없고, 불이익 또한 없기 때문’ 12.0%, ‘ESG 평가가 요구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 10.5% 순으로 답했다.

### 3) ESG 경영의 평가항목 중 실질적 대응 가능 분야

응답업체의 실질 대응 가능 분야를 집계해본 결과, 환경 분야에 있어 가장 높은 대응능력을 보인 부문은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관리’(58.1%), ‘폐기물 배출량 점검 및 관리’(52.4%) 등이었고, 비교적 낮은 대응능력을 보인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관리’(26.7%)로 나타났다.

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율 관리’(51.3%), ‘안전보건 추진체계 관리’(48.2%)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응능력을 보였고, ‘여성 급여 비율 관리’(13.6%), ‘결사의 자유 보장’(8.4%)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응능력을 나타냈다.

지배구조부문에 있어서는 ‘경영활동 중 ESG 고려’(53.9%) 부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대응능력을 보였다.

<표 3> 응답업체의 실질 대응 가능 분야

환경 부문	환경경영 계획 및 추진부서	36.6	사회 부문	정규직 비율 관리	44.0
	원부자재 효율적 사용·관리	49.2		결사의 자유 보장	8.4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관리	26.7		여성 구성원 비율 관리	16.2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	58.1		여성 급여 비율 관리	13.6
	용수 사용량 측정·관리	33.5		장애인 고용율 관리	20.4
	폐기물 배출량 점검·관리	52.4		안전보건 추진체계 관리	48.2
	수질폐기물 배출량 점검·관리	33.5		산업재해율 관리	51.3
	전체	41.4		사회공헌활동	24.1
지배 구조 부문	경영활동 중 ESG 고려	53.9	구성원 봉사 참여	15.7	
	전체 이사 출석률	25.1	전체	35.2	
	이사회 안건 처리	39.8			
	주주총회 소집 공고	27.7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29.2			
	전체	26.9			

## IV.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참여요인 실증분석

### 1. 조사설계 및 변수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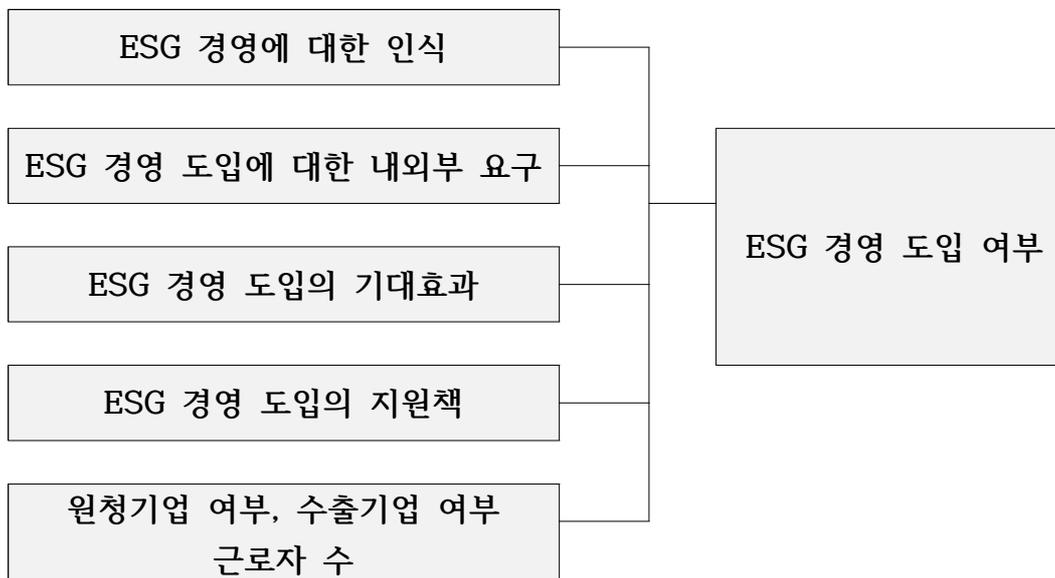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ESG 경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대내외 요구’, ‘ESG 경영 도입의 기대성과’, ‘ESG 경영 도입의 지원책’ 등 네 가지 요인을 측정했다. 이들 요인들은 27개 공통 평가항목으로 항목별 1점에서 7점 사이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했다.

또 ESG 경영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로자 수, 원청업체 여부와 수출여부와 같은 사회 통계적 변수도 고려했으며, 이 중 원청업체, 수출여부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했다.

종속변수는 ESG 경영 도입 여부에 있어서 ESG 경영 추진 및 준비 단계에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구분했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18을 이용해 분석했다. 먼저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추출된 요인을 기초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했다.

<그림 9> 조사모형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설문문항의 개념타당성 파악 및 요인축약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의 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을 사용했으며, 요인 회전방식은 하나의 요인에 다수의 요인이 적재되는 것을 방지해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했다. 각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은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며, 요인 적재치는 0.6을 적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했다.

요인분석 결과 KMO값이 0.90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5265.177( $p < .000$ )로 유의수준 보다 작아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또한 총 분산은 74.393%로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공통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 ‘내외부요인’, ‘기대효과’, ‘정책지원’으로 정의했다.

신뢰도와 타당성<sup>15)</sup>을 분석했으며, 신뢰도 측정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적 일관성의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로 평가되는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sup>16)</sup>를 이용했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알파 값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들이 요인에 관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265.177
	자유도	325
	유의확률	.000

15) 설문지와 같은 측정도구, 항목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분석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응답자로부터 일관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측정도구로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신뢰도 분석은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16)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한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소용할만한 것으로 여겨지며, 0.6~보다 작을 경우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4> 회전된 성분행렬

	변수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고유값 (Eigen value)	설명변량 (Explained variance)	크론바하 알파값 (Cronbach $\alpha$ )
인식	당장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670	1.172	13.855	.875
	장기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620			
	일시적 유행으로 느끼지 않는다	.781			
	기업규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881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847			
내외부유인	경영자의 의지	.776	3.964	19.590	.958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	.814			
	금융기관의 요구	.816			
	경쟁업체의 ESG 활동	.795			
	해외 ESG 관련 인증 및 규제	.765			
	국내 ESG 관련 방침 및 규제	.772			
기대효과	원청 및 소비자와의 유대 강화	.789	2.105	18.748	.963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유리	.784			
	매출, 생산 등 경영성과 개선	.768			
	투자유치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800			
	기업의 명성, 이미지 등 평판 향상	.768			
	ESG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792			
정책지원	캠페인 등 임직원의 인식 전환 지원	.712	12.162	22.200	.928
	기업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	.707			
	컨설팅 및 정보 제공	.682			
	도입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840			
	도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782			
	평가지표 통합 및 구체적 방법 제시	.823			
	도입기업에 인증 및 공공구매 확대	.745			
	제반 인프라 지원	.846			
	원청·협력업체와의 ESG 관리 공조지원	.773			

KMO=.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2=5265.177(p<.000)$

### 3) 추정결과

본 조사의 목적인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모형의 독립변수인 종업원 수, 완성품 생산여부, 수출 여부를 비롯해 앞서 추출된 4개의 요인과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여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2 Log 우도값이 117.025로, 카이제곱 (Chi-Square)값은 146.242(df=7,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x&Snell R제곱=.535, Nagelkerke R제곱=.71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형의 예측력은 85.3%였다.

그 결과 ‘종업원 수’(Wald=8.883, p<0.05), ‘원청 여부’(Wald=4.807, p<0.05), ‘수출 여부’(Wald=3.231,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승산비로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1명 많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일 확률이 1.009배 증가하고, 수출기업의 경우 내수기업 보다 2.522배 높은 확률로 ESG 경영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기업 보다 3.11배 높게 나타났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eta$	Exp( $\beta$ )	Wald
ESG 경영에 대한 인식	.124	1.132	.216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내외부 요구	.463	1.589*	3.093
ESG 경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1.117	3.055**	7.833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정책지원	-.343	.710	.709
종업원 수	.009	1.009**	8.883
원청기업 여부	1.135	3.110**	4.807
수출기업 여부	.925	2.522*	3.231
-2로그우도		117.025a	
Cox와 Snell의 R-제곱		.535	
Nagelkerke R-제곱		.715	
카이제곱		27.733**	
분류정확도		85.3%	

\*\*\* p<0.001, \*\* p<0.05, \* p<0.1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청기업의 경우 국내 소비자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환경, 기업윤리,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ESG에 대해 협력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출된 4개 요인 중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내외부 요구’(Wald=3.093,  $p<0.1$ ), ‘ESG 경영에 대한 기대효과’(Wald=7.833,  $p<0.0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SG 경영에 대한 인식’(Wald=0.216,  $p>0.1$ ),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지원’(Wald=0.709,  $p>0.1$ )은 ESG 경영 도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에서 ‘ESG 경영도입의 내외부 요구’ 영향이 1단위 높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할 확률이 1.589배, ‘ESG 경영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의 경우 3.0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원지역 기업의 ESG 경영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SG 경영도입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개선의 기대’와 시장개척 등의 기대효과,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 국내 ESG 관련 정부 방침 및 규제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경영도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여부와는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 여부를 떠나 현재 산업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없이 여타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ESG 도입에 필요한 정책지원 역시도 도입여부와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실제로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한 지원제도의 참가희망 여부(지원 희망/비희망)를 집단변수로 하고, 실제 ESG 경영 도입 수준<sup>17)</sup>을 종속변수로 해 T검증을 활용해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유의미한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두 집단(지원 희망/비희망)은 ESG 경영 도입 수준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났다.(Levene 등분산 유의확률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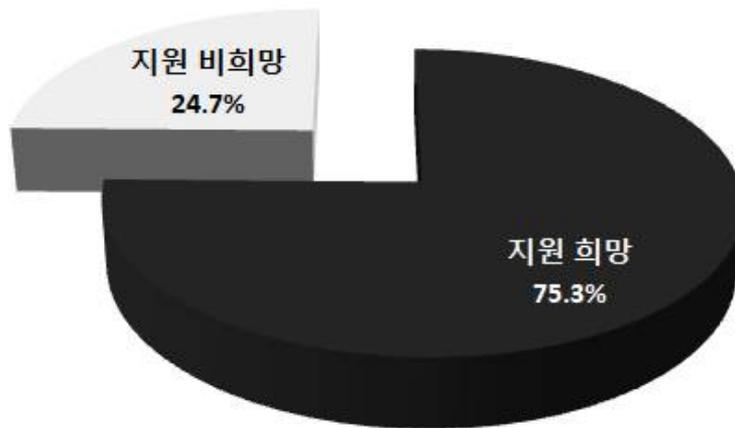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한 지원제도의 참가를 희망하는 응답업체의 비중이 75.3%로 과반수를 크게 상회함에도 이것이 실제 ESG 경영 도입 여부와는 별

17) ① 전사적으로 계획수립 및 추진, ② 점진적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③ 현재로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④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다른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경영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은 항상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0> ESG 경영 도입과 관련한 지원제도 참가희망 유무 (n=190)



결국 기업의 ESG 경영도입을 통해 실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내외부로부터 도입의 압박 또는 유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ESG 경영에 대한 인식’요인의 세부항목과 ‘ESG 경영 도입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 도입은 당장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하다’(Wald=12.485, p<0.000)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1단위(7점 척도) 높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할 확률이 1.832배 높게 나타났다.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ESG 경영에 대한 인식요인의 세부항목)

	$\beta$	Exp( $\beta$ )	Wald
당장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605	1.832***	12.485
장기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066	.936	.118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14	1.121	.396
기업규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061	.941	.067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366	1.442*	3.142
-2로그우도		207.951a	
Cox와 Snell의 R-제곱		.251	
Nagelkerke R-제곱		.336	
카이제곱		55.317***	
분류정확도		73.8%	

\*\*\* p<0.001, \*\* p<0.05, \* p<0.1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ESG 경영에 대한 내외부 요구의 세부항목)**

	$\beta$	Exp( $\beta$ )	Wald
경영자의 의지	.217	1.242	1.273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	.343	1.409*	3.637
금융기관의 요구	.048	1.049	.035
경쟁업체의 ESG 활동	.060	1.061	.055
해외 ESG 관련 인증 및 규제	.251	1.286	1.435
국내 ESG 관련 방침 및 규제	.339	1.404	1.442
-2로그우도		169.952a	
Cox와 Snell의 R-제곱		.386	
Nagelkerke R-제곱		.516	
카이제곱		92.736***	
분류정확도		80.5%	

\*\*\* p<0.001, \*\* p<0.05, \* p<0.1

또 'ESG 경영에 대한 내외부 요구'요인의 세부항목과 'ESG 경영 도입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Wald=3.637, p<0.1)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1단위(7점 척도) 높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할 확률이 1.409배 높게 나타났다.

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요인의 세부항목과 'ESG 경영 도입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유리'(Wald=5.620, p<0.05)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1단위(7점 척도) 높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할 확률이 5.620배 높게 나타났고, '매출, 생산 등 경영성과 개선'(Wald=9.889, p<0.05)은 2.477배, 'ESG 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Wald=5.264, p<0.05)은 2.031배 높게 나타났다.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의 세부항목)**

	$\beta$	Exp( $\beta$ )	Wald
원청 및 소비자와의 유대 강화	-.558	.573	2.814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에 유리	.803	2.233**	5.620
매출, 생산 등 경영성과 개선	.907	2.477**	9.889
투자유치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070	.932	.053
기업의 명성, 이미지 등 평판 향상	.105	1.110	.161
ESG 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708	2.031**	5.264
-2로그우도		149.846a	
Cox와 Snell의 R-제곱		.448	
Nagelkerke R-제곱		.599	
카이제곱		113.421***	
분류정확도		81.7%	

\*\*\* p<0.001, \*\* p<0.05, \* p<0.1

## IV. 결론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자체의 목적성과 가치보다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트렌드 변화가 기업의 유지와 미래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ESG가 강조하는 세가지 핵심요소는 모두 재무제표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재무적 지표들이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에 즉각적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당장 기업의 생존이 우선인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온전히 고려치 않은 맹목적인 ESG 경영의 도입에 대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 회사의 목적이나 사업과 관계없는 ESG 요소의 고려는 중소기업의 ESG 유인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뒤따라야만 ESG 경영 또한 의미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원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참여요인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창원지역 기업이 인식하는 ESG 경영의 핵심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각 부문별 중요도와 자체평가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중 환경부문의 중요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환경부문의 경우 이미 법과 규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문이기에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시한 K-ESG 중소기업 평가지표 중 실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부문이 비교적 높은 대응능력을 나타냈다.

둘째, ESG 경영에 대한 창원지역 기업의 인식은 기준점(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인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5.65점(7점 척도)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기업규제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인식은 기준점을 상회하기는 하였으나 인식 항목 중 가장 높은 표준편차를 보였다. 이는 ESG 경영이 장기적인 기업 성장의 필요한 요인이라는 인식과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규제이자 경제적 부담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종업원 수, 원청기업 및 수출기업 여부가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1명 많을수록 기업이 ESG를 도입할 확률이 1.009배 증가하고, 수출기업은 내수기업 보다 2.522배, 원청기업은 협력기업 보다 3.11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결과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청기업의 경우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창원지역 기업이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대효과’와 ‘내외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6개 항목을 7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기준점(4점)을 상회했다. 이는 모든 측정항목 모두 대체로 ESG 경영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로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다.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에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1단위 높을수록 ‘ESG 경영을 도입할 확률이 3.055배 증가했고, ‘ESG 경영도입의 내외부 요구’의 경우 1.5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업체 또는 해외거래처의 요구’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 함께 설문이 이루어진 요인인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정책지원’과는 특별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ESG 경영을 기업활동에 도입하게 되는 것은 ESG 경영이 내포하는 인식 보다는 기업을 둘러싼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ESG 경영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또는 자자체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을 통해 실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ESG 지원제도 마련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ESG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환경 부문의 경우 기업규모와 ESG 경영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 대부분의 기업의 공통관심사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등 자사의 사용량 및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ESG경영 도입 지원의 일환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문 중 에너지 및 폐기물 사용량과 배출량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법·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부분인 만큼 참여기업의 니즈에 의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원청기업과 협력기업 간 ESG 협력모델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주체로 원청기업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인 만큼 원청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사 관리 또한 중소기업 ESG 활동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축적해온 ESG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ESG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보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ESG 경영을 하는 것보다 대기업을 거친 간접적인 ESG 활동은 ESG 무역장벽화와 같은 이슈에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다만 협력사에 대한 하달식 ESG 경영 요구는 지양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사의 ESG 컨설팅 및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협력모델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및 지자체의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절차적 지원 보다는 성과 도출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또한 도입과정과 더불어 기대효과와 우수사례 중심의 자료 수집도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을 통해 본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ESG

경영 도입이라는 실천적 행동과는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은 자사가 ESG 경영 도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때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지원정책 수립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이 관리를 돕는 ESG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외부요인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정부나 기업이 도와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ESG 경영이 요구된다. 아직 ESG 개념정립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통한 자체적인 활동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손영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p.71, 2021
- 이지은·양동훈·장영균, CEO의 특성이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 윤리경영연구 제21권 제2호, p.96, 2021.
- 이우식, EU의 ESG 관련 법제화와 은행의 대응 방향, 경제법연구 제20권 3호, pp.157-185, 2022
- 이연호, ESG의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 동서연구 제33권 4호, pp.253-271, 2021
- 이용규·김은누리·빛모아·사름한가하, 표준화를 통한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국가정책연구 제 35권 제4호, pp.37-64, 2021
- 김효정·이준석, 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 괴리 가능성 연구-ESG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p.200, 2021
- 전규안·노희천·정아름, ESG 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pp.181-209, 2021
- 임형철·정무섭,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아태비즈니스연구 Vol.12 No.4, pp.179-192, 2021
- 이선미·박종철,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22권, 제1호, 2022
- 윤현경·이성호·남정민, 소비자의 ESG경영요구가 ESG경영지지에 미치는 영향, Entrepreneurship&ESG연구 제1권 2호, pp.1-24, 2021